

葉聖陶와 吳濁流 短篇小說속에 나타난 知識人 形象 小考*

유재성**.이용태***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I. 知識人 形象
II. 葉聖陶·吳濁流 생애로 본 문학관	1. 葉聖陶 작품속의 지식인 형상
1. 葉聖陶의 생애와 문학관	2. 吳濁流 작품속의 지식인 형상
2. 吳濁流의 생애와 문학관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현대 신문학시기 중국 대륙과 대만 본토에서 창작활동을 한 葉聖陶(이에 성 타오)와 吳濁流(우 쩌우 려우)의 단편소설 속에 나타난 지식인의 형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대륙의 葉聖陶와 대만 본토의 吳濁流는 비슷한 시기에 생존하고 작품 활동을 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어려서는 한학 교육을 받았고, 성장과정 속에서는 현대식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교사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대만 안에 벌어지는 교육계의 현실을 사실주의 창작수법으로 당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비록 그들은 해외 유학 없이 각각 중국 대륙과 대만 본토에서 성장한 작가로

* 본 논문은 2018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일대학교 비즈니스중국어과 조교수
 *** 백석문화대학교 글로벌어학부 교수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적이 없지만, 두 작가가 추구하는 문학과 소설 창작이 매우 유사하다. 특히, 그들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그들은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 및 정치적 상황을 고민하는 지식인 형상을 통해서 당시 중국과 대만의 문제를 고민했다.

이에 본고는 두 작가의 단편소설을 평행비교의 연구방법으로, 葉聖陶와 吳濁流의 단편소설 속에 나타난 지식인 형상의 비교를 통해, 당시 중국 대륙과 대만 사회에서 표출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 계층이 어떻게 대응하고 사고하는지를 수평 비교하여 동양문학의 범주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문학의 보편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葉聖陶·吳濁流 생애로 본 문학과

1. 葉聖陶의 생애와 문학과

葉聖陶(1894~1988년)는 江蘇省 蘇州 사람으로, 본명은 葉紹鈞(이에 사오 권), 필명이 葉聖陶이다. 그는 6세부터 《三字經》·《四書》·《五經》을 익혔고, 그 후 민간설화·영웅고사 및 彈詞(탄사) 등을 학습하였다. 1906년에 長元吳公立高等小學에 입학하여 신식교육을 받았고, 여기서 顧頡剛·章元善 등과 알게 되었다. 1907년에 蘇州府公立中學堂에 입학하여 서방의 현대문화·과학지식 등에 대해 처음으로 학습하였다. 특히 그는 영어 수업을 통해 서방문학 작품을 처음접촉하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실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워싱턴 어빙(Irving Washington, 1783~1859)의 《見聞雜記》와 톨스토이(Tolstoy Lev Nicolaevich, 1928~1910), 모파상(Maupassant Henri Pene Albert Guyde, 1850~1893), 체호프(CheKhov Anton Pavlovich 1860~1904), 안데센(Andersen Hans Christian, 1805~1875), 와일드(Wilde Oscar 1856~1900), 그림(Grimm Jacob 1785~1863) 등의 작품으로부터 문장 및 습작 방법을 습득하였다. 또한 1908년에는 王伯祥·顧頡剛·吳賓若

등과 함께 “放社”를 조직하여 詩와 詞 등을 학습을 하였다.

葉聖陶는 당시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國粹學報》·《革命軍》·《皇帝魂》·《天討》·《東方雜誌》·《民呼日報》·《民立報》·《時報》·《婦女時報》·《民國報》 등과 같은 각종 신문을 열독하며 중국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았다. 그는 해외 유학을 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학습하고 활동하는 현대문학 작가 중 개방성을 가진 대표인물로 성장했다.

葉聖陶는 1912년 蘇州府公立中學堂을 졸업하고 用直縣에 있는 第5高等小學에서 교사생활을 6년 동안 했다. 이때 그가 겪은 삶은 그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으로 통해 투영되어 1920년대 중국의 사회상을 그려내었다. “5·4운동”을 전후하여 그는 “新潮社”에 참여하여 《新潮》잡지에 교육에 관계된 문장을 발표하였는데, “5·4운동”은 그로 하여금 봉건도덕의 기반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실주의 창작으로의 길을 걷게 하였다. 葉聖陶는 1921년 “文學研究會”의 발기인으로 참석하여 “爲人生而藝術”를 주장함으로써, “寫實主義文學”을 제창하였다. 그는 문학에서 “人生”을 강조하였고, 사람과 문예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화초와 같고, 문예는 비와 이슬과 같다. 사람은 물질상의 욕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물질상의 욕구는 따라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상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문예는 실로 가장 중요한 물건이다.”¹⁾

따라서 그는 문학과 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충실한 생활이 문학창작의 원천이라 여겼다. 또한 葉聖陶는 인생과 소설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 人譬如花草，文藝就是雨露。人不僅須有物質上的欲求，物質上的欲求隨以改進。而可以激起和滿足我們的精神上的欲求的，文藝實爲最重要的東西。(葉聖陶，〈文藝談六〉，《葉聖陶論創作》，上海，上海文藝出版社，1982，11頁。)

“나는 외국소설의 원류를 모른다. 번역본으로 보고 듣는 것인데 아마도 여러 가지 경향이 있다. 가까울수록 작자와 작품은 분리되지 않은채 더욱 일체이다. …… 소설과 인생은 서로 혼합되어 분리될 수 없다.”²⁾

葉聖陶에게 있어 1925년의 “5·30참안”은 새로운 각성을 주었던 시기로 그의 문학창작에도 변화가 있었다. 《小說月報》의 편집을 맡게 된 葉聖陶는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신문학사상 저명한 작가들을 발굴하였다. 沈雁冰의 〈幻滅〉이나 필명 丁玲의 〈夢珂〉, 巴金的 〈滅亡〉, 戴望舒의 〈雨巷〉 등이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1930년 《婦女雜誌》의 편집을 맡은 후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 부녀자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편집에 있어 “5·4운동”이래의 “科學”과 “民主”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각 방면에서 실제 부녀자 생활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였고, “토론란”을 만들어 많은 독자의 투고를 유도하였다. 1931년 12월 19일 夏丏尊·周建人·胡愈之·郁達夫·丁玲 등과 함께 “文藝界反帝抗日大聯盟”을 발기 조직하였고, 1932년 2월 3일에는 魯迅·茅盾·陳望道·郁達夫·丁玲·胡愈之 등과 연합하여 〈上海文化界告世界書〉를 발표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1937년 7월부터 항일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문학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요구를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여 “인민을 위한 立言”의 사실주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1942년부터 開明書店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편집 일을 하다가, 1945년 5월 4일에 “文協”의 主席을 역임하였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문예계의 진보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당시 부패한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西川集〉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 “我不知外國小說的源流, 就聽見譯本中觀察, 似乎在多種傾向, 就是越到近時, 大家就越認定作者和作品是一體而不是分離的. …… 小說和人生抱合了, 配和了, 不可分離了。”(葉聖陶, 〈文藝談十七〉, 같은 책, 35頁.)

현실을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요구를 부르짖는 것은 문학의 시대적 사명이요,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교육은 고립적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 상황에서 교육의 불량은 전적으로 교육자를 꾸짖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³⁾

葉聖陶는 1949년 이후 교육부 부부장 및 인민교육출판사 사장 및 총편집 등을 역임하였고, 1983년6월에 제6회 전국정치협상회주석을 지내면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 등의 문장 등을 발표하였다.

2. 吳濁流의 생애와 문학관

吳濁流(1900~1976년)는 臺灣 新竹縣 新埔鎮에서 태어난 客家 사람으로, 그는 시인·소설가로 활동하였으며, 《臺灣文藝》 및 吳濁流文學獎基金會의 창시자이고 문학운동가이며, 대만 광복 전후 시기의 사실주의 작가이다. 그 역시 외국에 유학한 경험이 없는 순수 대만 토종 작가로 어려서부터 漢學 교육을 받았다. 그의 할아버지 吳芳信으로부터 반 은거식의 생활 및 초현실적 태도 중용적 처세 등의 영향을 받았다. 장성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 하에 일본식 교육 및 외국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당시의 중국 및 세계 상황에 대해 신문·잡지 등을 탐독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졸업 후에는 교육계에 근무를 하였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중국 남경에서 잠깐 기자생활 및 군 생활도 몸소 겪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일제강점기 대만 식민생활과 제2차 세계대전 하의 공포, 광복 후의 사회동란 및 경제공황 등등이 반영되어져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경찰제도·보갑제도(保甲制度)·황민화정책·경제약탈·사회생활 및 비굴한 인생 등이 소설창작의 소재이다.

3) 反映現實，咸出人民大眾的要求，是文學的時代的使命，這個綱領我極端相信。教育不是孤立的事項，在如今的現實情況之下，教育不良不能全怪教育者，這個說法我極端同意。(劉增人等，〈《西川集》自序〉，《葉聖陶研究資料》，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1988，254頁。)

吳濁流는 1916년 17세 때 대만총독부 臺北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1920년 21세 때 졸업하면서 대만 新埔公학교 照門분교 주임에 임명되었다. 이후 1927년엔 苗栗詩社(약칭 栗社)에 가입하고 고전시가를 창작하였고, 1931년엔 폐결핵이 의심되어 학교를 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생활을 하였다. 吳濁流는 1934년 일본어로 소설 창작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 소재는 일제 강점기의 대만 식민생활과 광복 후의 사회혼란 및 세계경제공황의 시대적 배경 하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보갑제도(保甲制度)”·“황민화정책”·“경제약탈”·“사회생활 및 비굴한 인생” 등의 배경 하의 소재는 극히 사실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吳濁流는 소설 창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쓰는 소설에는 역사성의 성격이 있고 저술한 각 문장은 사회의 한 단면이다. 현재 19편은 그것을 연관을 지어볼 때 일제 강점기 및 광복 후의 사회현상의 투영하고 정치적 영향인 동시에 왜곡된 사회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만의 내막을 볼 수 있다.”⁴⁾

이러한 소설관점은 그의 사실주의 문학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문학은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업상으로도 정치상으로도 혹은 그 밖의 것은 모두 안 된다. 만약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학 자신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학의 생명은 예술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예술과 분리될 수 없다.”⁵⁾라고 주장하였다. 또 1975년 쓴 평론에서 “문학은 문학일 따름이다. 절대적인 자유 상태에서만이 좋은 작품이

4) 我寫的小說帶有歷史性的性格，所寫的各篇都是社會真相的一斷面，現在選出十九篇付梓，若將此十九篇連串起來，日據時代及光復後的社會情形之投影，以及政治的影響不消說，同時，社會的歪風畸形怪相也加以窺見的，所以亦可作為本省社會之內幕來看吧。(吳濁流，〈吳濁流選集自序〉，《吳濁流選集》，臺北，遠行出版社，1977，17頁。)

5) 文學不能來做工具，無論是商業上，抑是政治上，或其他都不行，如果拿來做工具的話，一定影響到文學本身的生命。原來文學的生命是藝術，所以文學不能遊離藝術。(吳濁流，〈文學就是文學，不是工具〉，《臺灣文藝》11期，1966，30頁。)

나올 수 있다. 아침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며, 구호를 외치는 것 또한 문학이 아니다. 문학은 예술일 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것을 상업 도구로 사용하려다 실패하고 전쟁 전에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다 안 되었던 것이 그러한 예이다.”⁶⁾라고 주장했다. 즉, 문학의 정치적 수단에 반대하고, 문학 자체의 목적만을 추구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하면서 대만인들은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尊王攘夷의 정신을 강요를 받았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러한 일본의 尊王攘夷의 일환으로, 대만인들을 전쟁터로 동원되기 위해 군사교육에 매진하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吳濁流는 1942년 南京에 1년 넘게 있으면서 “日本國臺灣人” 기자의 눈으로 본 일본에 점령된 중국도시의 상황을 10개월 동안 연속해서 《臺灣藝術》에 〈南京雜感〉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대만문인들은 保身주의로 소설을 쓰지 발표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吳濁流는 대만 광복 후 2년간 관찰한 사회와 느낌 및 개선 사항을 1947년 6월 수필집 《夜明 前の臺灣》에 담아 발표했다. “대만청년이 걸어가야 할 길”·“노예화교육과 대만교육에 관한 소견”·“신시대와 함께 가자”·“대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민주정치와 정치인재” 등이 그 내용으로 이것은 당시 사회현상을 깊이 있게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다. 1963년에는 일제강점기 사회의 불공평과 부정부패한 상황을 풍자한 단편소설과 수필·논문 3편을 포함해서 《瘡疤集》 2권을 출판하였다. 1964년에는 《臺灣文學》을 창간해 대만 현대문학을 부흥하려 했고, 1965년에는 신인 창작의 독려를 위해 臺灣文學獎을 제정하였으며, 1976년 10월 7일 병으로 향년 77세를 마감하였다.

6) 文學就是文學，要有絕對自由意識才能產生好作品，拍馬屁的，喊口號的治不是文學，文學是藝術不能拿來做工具，象日本當作商具也無成就，戰前拿去做政具也不行。(吳濁流, 〈對文學的一二管見〉, 《臺灣文藝》 46期, 1975, 75頁.)

Ⅲ. 知識人 形象

1. 葉聖陶 작품속의 지식인 형상

葉聖陶는 〈葉聖陶選集·自序〉에서 그의 소설 소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교사로 일하면서 교육계의 상황을 접하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중국 혁명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는 일련의 것들을 보았고 또 그것들을 기록하였다. 소설 속의 인물이 거의 모두 지식인과 소시민이다. 왜냐하면 나는 농민대중과 부유한 상인, 관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인과 소시민에 대해서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이다.”⁷⁾

위와 같이 葉聖陶는 자신이 오랫동안 교육계에 근무하면서 교육계의 현실과 지식인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그의 작품 속에 잘 투영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자서전적인 형식으로 창작하였다. 즉, 작품속의 주인공과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폭로하였다. 그는 작품에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작품에 대하여 茅盾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十年” 중 소시민·지식인들의 회색인생을 반영한 작가가 누구냐고 질문을 한다면, 나의 대답은 葉紹鈞이다.⁸⁾

7) “我當老師，基礎一些教育界的情形，我就寫那些。中國革命逐漸發展，我粗淺地見到一些，我就寫那些。小說里的人物差不多全是知識分子跟小市民，因為我不了解工農大眾，也不了解富商巨賈官僚，只有知識分子跟小市民比較熟悉。”(葉聖陶, 〈葉聖陶選集·自序〉, 앞의 책, 195頁.)

8) 要是有人問道：第一個“十年”中反映着小市民知識分子的灰色生活的，是哪一位

이처럼 葉聖陶는 지식인 형상을 묘사하는데 이름이 나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식인 사이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사상적 행동의 약점 및 그 폐해를 관찰하였다. 그의 작품은 주로 아주 작은 일들을 대상으로 사회 및 시대와의 관계가 비교적 작은 소재를 사용했다. 이러한 그의 작품태도에 대해 許祖華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양연구문학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표어는 ‘문학은 인생의 반영’이다. 그는 이러한 명제를 진일보 해석하여 말하길: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해, 문학은 그것을 반영해야한다”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⁹⁾

葉聖陶의 작품을 보면, 유약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지식인 형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지식인을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綠衣〉·〈疑〉·〈不快之感〉·〈飯〉·〈校長〉·〈病夫〉·〈一個朋友〉·〈潘先生在難中〉·〈前途〉·〈城中〉·〈搭班子〉·〈一包東西〉·〈抗爭〉·〈夜〉·〈赤著的脚〉·〈某城紀事〉·〈李太太的頭髮〉·〈某鎮紀事〉·〈冥世別〉 등이 있다. 상술한 지식인의 형상 외에 개혁정신을 가진 지식인형상도 있는데, 〈橋上〉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綠衣〉의 주인공인 지식인은 우편배달부의 서신을 통하여 세상의 소식과 접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어느 날 우편배달부와 접하는 일이 중단되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내용이다. 葉聖陶는 이 소설을 통해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은둔하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지식인을 묘사하였다. 〈疑〉에서는 우유부단함과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는 지식인인 주인공 “伊”의 약점을 폭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적인 의심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葉聖陶는 “5·4운동”전후 지식

作家的作品呢? 我的回答是葉紹鈞。(茅盾, 〈中國新文學大系·小說一集導論〉, 《中國新文學大系·小說一集》, 上海,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5, 10頁.)

9) 西洋研究文學者有一句最普通的標語是‘文學是人生的反映’, 他還進一步解釋這一命題說: ‘这就告訴我們, “人們怎樣生活, 文學就把那种种反映出來。”(許祖華, 〈西方文論與五四新文學的本體論〉, 《外國文學研究》 第二期, 1922, 94頁.)

인 청년사회에서 유행했던 시대적 질병중의 하나인 소시민의 위선·조롱·이기심·무관심 등을 심도 있게 토로하였다. 〈不快之感〉은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청년들이 현실 인생을 빨리 바꾸고자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대한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飯〉은 주인공 뒤편생이 불쌍한 시골 학교 교사로 학무위원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착취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사의 자리를 구걸하기 위해 찾아간다는 이야기이다. 葉聖陶는 이 작품에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로까지 만연된 교육당국의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지식인으로 먹고 살기위해 권력자 앞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이상과 기개를 완전히 상실해가는 과정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한편 〈校長〉에선 中小學校 교장인 叔雅는 이상적인 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부패한 교사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세력가들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소신을 접고, 결국엔 현실과 타협한다. 葉聖陶는 이러한 타협은 지식인의 비겁한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기적이고 비열한 舊세력과 정면으로 투쟁할 수 없었던 연약한 지식인의 형상을 비판하였다. 〈病夫〉에서 주인공 薛振之는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하여 출판사에 근무하나 “5·4운동” 퇴조기에 부득불 출판사에서 퇴직당하는 지식인이다. 葉聖陶는 “5·4운동” 시기 시대적 고민과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약해지는 지식인의 전형을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였다. 〈一個朋友〉에서 애정지상주의에 있는 주인공은 “5·4운동” 퇴조기에 그가 사랑하는 萬여사와의 편지를 통해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구혼을 청해보지만 거절당한다. 이 일로 인해 고민과 좌절에 빠진 지식인의 내면적 심리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葉聖陶는 지식인인 주인공을 통해 당시 현실에 직면해야할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괴리감 내지는 고독감을 사실적으로 폭로하였다. 〈潘先生在難中〉에서는 군벌혼전시기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안일하고, 무감각한 지식인의 심리와 성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작품속의 주인공 潘先生은 혼전시기 시민과 학생들을 걱정해야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 권세에 빌붙어 자신과 가족의 안녕만을 추구한다. 또한 전쟁의 위협을 느낀 주인공은 적십자에 찾아

가 휘장을 달고 자신의 안일을 구했으며, 군벌세력에 의지하기 위해서 군벌세력의 개선을 환영하는 글을 작성한다. 葉聖陶는 이 작품에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당시의 전형적 지식인 형상을 소학교 교사인 潘先生을 통해서 빗대어 풍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924년 江浙 군벌 혼전을 묘사함으로써 내전을 일으킨 군벌에 대해 일침을 가하였다. 茅盾은 1928년 쓴 〈王魯彥論〉에서 〈潘先生在難中〉의 지식인 형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접소군의 작품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시 소자산계급을 묘사한 몇 편이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潘先生在難中〉이다. 이 소설 속에는 사회의식이 없는 도시 자산계급, 비굴한 이기주의, preczution, 하찮음, 감청으로 인한 질림, 안일과 기쁨 등등의 심리 묘사가 잘 되었다.¹⁰⁾

〈前途〉에서 주인공 惠之는 군벌혼전 중 생활이 빈곤하여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군벌전쟁으로 인해 학교는 수업을 할 수 없었고, 학교 운영비는 군으로 징발되어 월급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행정관리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위해 경찰청에 20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검직을 구하는 동시에 어려운 문제를 경찰청장에게 부탁하여 해결한다. 역시 비굴한 지식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葉聖陶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군벌혼전 중에 놓인 소지식인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까지 고통 받고, 소지식인들이 겪는 절망적인 생활 및 어두운 앞날을 폭로하고 있다. 〈城中〉에서는 교육계의 新·舊 투쟁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주인공 丁雨生은 “5·4운동”이후 형성된 신 혁명지식인 형상이다. 그는 생각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宏毅中學을 창립한

10) 在葉紹鈞的作品裡，我最喜歡的也就是描寫城市小資產階級的幾篇。現在還深深地刻在記憶上的，是那可愛的〈潘先生在難中〉。這把城市資產階級的沒有社會意識，卑謙的利己主義，preczution，瑣屑，監虛警而失色，暫苟安而又喜，等等心理，描寫得透徹。(韓立群，〈葉紹鈞小說中的知識分子形象〉，《聯城師範學院學報》，1982)

다. 그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 개조를 위해 전통문화를 비판한다. 또한 남녀 교원, 학생 모두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高菊翁·陸仲芳·王薰伯 등 수구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군벌세력의 압제·유언비어 등 모함에 빠진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丁雨生의 투쟁의지를 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저항하게 만든다. 〈搭班子〉에서도 신·구세력의 투쟁을 묘사하였다. 작품 속 주인공 澤如은 교육혁신을 주장하는 교장이다. 그는 교육에 봉사하는 젊은 교사를 초빙하여 신뢰를 주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나, 각 방면에서 끊임없는 간섭을 받는다. 葉聖陶는 이를 통해 구 중국사회가 모든 면에서 이미 부패한 관료정치에 빠져있고, 개혁을 위해선 모든 사회 환경을 바꿔야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하고 있다. 〈一包東西〉는 혁명 고조시기 한 중학교 교장선생이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서 혁명가인 그의 친구 老李가 준 부고문을 위험한 간행물이라 오해하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로 심리적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혁명시기에 비겁하기에 급급한 교장선생의 비극과 이기적인 심리를 풍자한 것이다. 길으로는 여느 학교 교장선생을 묘사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 지식인의 형상을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抗爭〉은 소학교 교원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항쟁한다. 주인공 郭先生은 교원들을 조직하여 파업을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교원들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동조하지 않는다. 그 결과 郭先生은 면직을 당하게 된다. 그 후 그의 투쟁정신은 길가의 노동자를 부러워하는 연약한 상태로 변한다. 葉聖陶는 지식인 郭先生을 통해 길으로는 강인하고자 노력하지만 본성은 나약한 지식인의 형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그는 혁명의 길에 들어서기 전, 그들에게는 이미 현실 문제를 개혁할 수 없었다는 전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橋上〉에서는 혁명정신과 투쟁정신을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 組靑은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대지주 卞五爺에게 강한 울분을 느끼고 “다리 위”에 매복하고는 卞五爺를 암살한다. 소설 속에는 주인공 組靑과 信伯, 그리고 憶如 사이에 주고받는 타협과 퇴폐주의에 대한 비판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주인공 組靑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 자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혁명 초기시대 지식인들의 시대정신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2. 吳濁流 작품속의 지식인 형상

吳濁流의 작품은 일제강점기(1895~1945) 50년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억압과 수탈, 대립과 타협, 저항과 협력으로 연속되는 대만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단편소설 역시 자전체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일본 식민통치시기에 대만 지식인들이 살아야했던 처지는 일본인 지식인과 비교하면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吳濁流는 이런 당시 세태를 나약하고 비열한 지식인 형상과 부정부패의 지식인 형상을 만들어 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풍자하였다. 吳濁流의 이러한 창작 경향은 그의 할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할아버지는 겸양의 미덕을 칭송하는 사람으로 무사주의를 신조로 삼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일본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연과 친근하며, 꽃을 심고 시를 읊었다. 4살부터 13살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내 성격에도 자연히 할아버지의 훈도가 나타났다.¹¹⁾

위의 말처럼 吳濁流는 조부의 영향을 받아 비분강개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표출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지식인 형상을 그려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水月〉·〈歸兮自然〉·〈功狗〉·〈老薑更辣〉·〈幕後的支配者〉 등이 있다.

11) 祖父稱讚謙讓的美德，是對一切都抱着無事主義的人，對日本人更是如此。避免與日本人接觸，親近自然，種花吟詩。我從四歲到十三歲和祖父一同生活，受到他的教訓。在我的性格上，也就自然地出現祖父薰陶的結果了。(吳濁流，〈臺灣連翹〉，臺北，草根，1995，36頁。)

먼저〈水月〉은 吳濁流 자신이 근무하면서 교육계에서 받은 정신적인 압박과 좌절을 포함한 불공평과 차별적 대우를 사전체형식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소설속의 주인공 仁吉은 일본 식민지하에서 일본인과 대만인사이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은 상황하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대만청년이다. 그러나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 일본인과 대만인사이에 “동일한 노동에 동일하지 않은 처우(同工不同酬)”가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결심한다. 그러나 처자식과 더불어 살아야하는 현실의 어두운 생활고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吳濁流는 주인공 仁吉의 심경을 통해 지식인들이 겪게 되는 실망과 학문탐구의 몽상을 그려내고 있으며, 일본 식민자의 추악함을 묘사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만인을 차등대우하는 어두운 사회현상을 폭로하였다. 〈歸兮自然〉는 힘없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주인공 丁先生의 만행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대만 지식인을 학대하는 일본 식민통치의 잔혹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당시 대만 지식인의 형상을 그려냈다. 〈功狗〉에서는 주인공 洪宏東은 富보다는 명예를 우선시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는 대만인 교사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그는 3개월간 병가를 낸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학교로부터 퇴직통보를 받는다. 그의 실직으로 인해 가정은 배고픔으로 허덕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의 딸이 그가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 표창장으로 사탕을 살 수 있느냐는 반문을 듣고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과 무력감을 토로한다. 吳濁流는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인의 불공정과 차별대우에 대해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인내하며 침묵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지식인의 형상을 그려내었다. 〈老薑更辣〉에서 주인공 金岩伯가 前 성장(省長)으로 대표하는 당시 지식인이 마음속으로는 서양을 숭배하는 풍조가 있음을 그의 셋째 손자 유학에 반대를 통해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吳濁流는 이 작품을 통해 무비판적으로 서양숭배를 하는 당시 지식인 형상을 비판하였다. 〈幕後的支配者〉에서는 몰락한 지식인인 阿九哥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는 전통과 학식이 있

어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과 아내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척 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가슴에 쌓은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葉石濤는 《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에서 “阿九哥는 몰락한 지식인으로 本省에서 나고 자란 돈키호테이다. 阿九哥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주의자로 현실을 모르는 사람 아니다. 그는 상당히 현명하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당나귀같이 고집이 세며, 행동의 의지가 결여되었다.”¹²⁾라고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또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지배자들의 물질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탐욕스런 사회풍토를 풍자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吳濁流는 일제강점기 대만사회에서 일본제국주의에 편승하는 부정부패하고 나약한 지식인형상을 그려 당시의 상황을 폭로했다. 吳濁流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보통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파’라 부를 수 있지만, ‘친일파’는 그 의미가 서로 같지 않다. 나는 역사상 ‘친일파’는 대체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무지한 자들로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 부지불식간에 ‘매국노’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고, 둘째는 이욕에 눈이 멀어 이익을 위해 앞 다투어 움켜쥐려는 자들이다. 이런 이들은 대부분 중산계급층이나 지식인들로 사상을 가지고 있는듯하지만 아무런 생각과 절개가 없는 기회주의자들도이다. 세 번째 부류는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시기가 오면 적극적으로 적들을 돕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소위 매국노이다. 사실 첫째와 둘째의 사람들은 ‘친일파’라 불릴 자격이 없고, 진정 ‘친일파’라 불릴 수 있는 자들은 세 번째 사람들뿐이다.”¹³⁾

12) 阿九哥是個落魄潦倒的知識份子，他是土生土長的本省唐吉訶德。阿九哥是個思路不清的理想主義者，但他並非糊塗得連現實都看不清的人，他是相當清醒的，但他不肯屈服於現實，他固執得如同驢馬，缺少一股行動的意志。(葉石濤，〈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臺灣文藝》第9期，1965，140頁。)

13) “凡是有利敵行爲的人，我們都可以稱他爲‘漢奸’，不過‘漢奸’的種類却不相同。据

이러한 지식형상을 대표로 하는 작품으로는 〈陳大人〉·〈先生媽〉·〈波茲坦科長〉·〈狻猊〉 등이 있다. 먼저 〈陳大人〉은 일제 강점기 순사되어 가족과 주민들을 강탈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주인공 陳英慶의 행위를 묘사하였다. 陳英慶은 대만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하게끔 권력을 주자, 대만인들에게 교만과 전횡을 부리고, 사람들은 그를 “陳大人”이라고 까지 칭하였다. 대만 해방 후, 호가호위했던 陳英慶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고, 더 이상 陳大人호칭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吳濁流는 이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대만인을 이용하여 대만인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대만인 출신의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대만을 왜곡된 사회, 왜곡된 인간관계를 형성케 하여 대만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모순상태에 빠지게 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先生媽〉속의 주인공인 의사 錢新發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출신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된다. 그 후 부유한 아내와 결혼을 한 후, 병원을 개업하고, 처가의 도움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그는 출세를 위해 일제강점기 황민화운동 정책에 순응하는 일본식의 삶을 선택하지만, 그의 어머니인 先生媽는 전통적 대만식 삶을 고집하면서, 매사에 양자간 대립과 갈등이 초래된다. 吳濁流는 작품 속에서 지식인인 의사 錢新發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초래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대비와 풍자의 방식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황민화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복한 가정환경의 先生媽의 고독과 거지의 고독감이 서로 별 차이가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波茲坦科長〉는

我看，歷史的‘漢奸’大致可以分爲三種：第一種是無識之徒，他們爲了自己的生活，在不知不覺間犯了和漢奸同樣的罪行；第二種利慾薰心之流，他們爲了利之所在，便爭先恐後地去攝取，這些人大多數是中產階層或知識分子，他們似乎有點思想，但實際上却是毫無思想和節操的機會主義者；第三種人的知識和能力都非常強調，但他們却忘了自己國歌的歷史，時機一到，他們使積極地去協助敵人，這種人就是所謂賣國賊。其實第一種和第二種，都沒有資格成爲‘漢奸’，真正够得上稱爲‘漢奸’的，只有第三種人。”（吳濁流，〈亞細亞的孤兒〉，臺北，草根出版社，1995，186頁。）

1945년 “포츠담회담”으로 일본의 무조건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波茨坦科長〉이 은유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중국에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다 1945년 “포츠담회담” 이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온 포츠담 장군·포츠담 정치가·교수 등을 지칭한다. 주인공 范漢智는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와서 부정부패를 한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당시 중국 대륙을 동경하는 대만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른 인물로 결국 수사대에 체포되고 만다. 吳濁流는 북벌에도 참가한 바 있고, 항전 초기 특무공작을 통해 혁혁한 공을 세운 주인공 范漢智가 세상이 바뀔에 따라 정반대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통해 왜곡된 역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비평을 가하였다. 〈狡猿〉은 대만 광복 후 어수선한 시기에 놓인 대만의 지식인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일제 강점기에 사회 하층계층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원래 가짜 약을 파는 떠돌이 주인공 江大頭에 관련된 일들을 묘사하였다. 그는 광복 초기 혼란한 틈을 타 비열한 사기수단으로 큰 재력을 모으고, 이후 향민(鄉民) 대표에서 성(省) 의원이 된다. 그의 인식에는 황금만능사상이 지배적으로 “돈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력이 있다. 3만 6십 조항의 육법전서에는 각 조항마다 이치가 있다. 그러나 황금만능주의만 못하다. 지금은 황금만능의 시대로 모든 나라가 이루어진다. 완벽한 일본 법률을 보라. 금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사회상 쟁탈자는 모두 돈이다. 돈이 있어야 하늘도, 땅도 무섭지 않다. 어떤 사람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아 법외에 존재한다. 법망은 천망과 같지 않는다. 천망은 셀 틈이 있으나, 법망은 셀 틈이 있다.”¹⁴⁾ 고 하였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江大頭는 情治部에 체포를 당하지만 일본으로 도망친다. “그는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방법을 잘 압니다. 그는 손오

14) “錢有移山之力，六法全書有三萬六千條，條條有理，但不如金條之萬能，現在是金條世界，各國都是這樣，你看日本法律怎麼完備，金條一道都可開關。社會上所爭奪者都是金錢，有了錢，天不怕地不怕，任人抨擊也不會垮，可以逍遙法外，法網不似天網，天網疏而不漏，法網漏而不疏。”(吳濁流，〈狡猿〉，《吳濁流集》，臺北，前衛出版社，1991，91頁。)

공 같은 능력이 있지요.”¹⁵⁾라는 말로 여운을 남김으로써 대만사회의 저급성과 부패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상 우리는 吳濁流의 지식인에 대한 형상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피식민지 통치하에서 비분강개한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표출하지 않으며 인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나오는 말

葉聖陶 소설속의 지식인 형상은 그가 가장 잘 아는 교육계의 지식인을 그 소재로 하고 있다. 그의 소설 속에 나타난 주된 주제는 중국교육의 가장 어둡고 부패한 현상을 폭로하고 있다. 葉聖陶의 초기 소설속의 지식인들은 혁명내지는 정치와 사회현상에 대해 전혀 관여치 않고, 오직 교육과 사회의 부패 및 인생의 불행만을 제기한다. 작가는 차츰 불합리한 사회생활의 이해가 높아갈수록 불합리한 현상에 불만을 갖고 점차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葉聖陶가 중·후기에 창작한 그의 소설에는 이러한 투쟁적인 지식인 형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城中〉의 주인공 丁雨生은 수구 교육세력에 대한 반대로 인해 새로운 학교운동을 주장하였고, 〈抗爭〉의 주인공 郭先生은 구세력에 투쟁한 인물로 쇠신을 목표로 동맹파업을 함으로써 단체결성의식의 역량을 설명하였다.

葉聖陶가 창작한 지식인 형상은 주로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인물로부터 “5·4운동”전후 시기 지식인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변화를 암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분노 및 도피 등등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인 형상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 환경에서 만들어진 시대적, 민족적 산물로 볼 수 있다.

吳濁流의 단편소설속의 지식인형상 역시 그가 가장 잘 아는 교육계 인물 형상이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 자전체형식의 작품으로 작가가 몸소 겪은

15) 仍然搞內行地下道，大歪大發，逍遙法外，他確有孫大聖的本事。(吳濁流，같은 책，176頁。)

상황을 사실주의로 창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水月〉을 꼽을 수 있다. 吳濁流는 〈水月〉에서 교육계에서 받은 정신적인 압박과 좌절을 포함한 불공평과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지식인형상을 창작하였다. 또한 〈歸兮自然〉에서는 주인공 丁先生의 만행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대만인 지식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독한 지식인 형상을 창작하였다. 〈功狗〉에서는 일본인의 불공정과 차별대우에 대해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인내하며 침묵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지식인의 형상을 주인공 洪宏東을 통해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老薑更辣〉에서는 주인공 金岩伯을 통해 무비관적이고, 공경적인 서양숭배를 하는 당시 지식인 형상을 비판하였다. 吳濁流는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주의에 편승하려는 지식인 형상을 창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先生媽〉이다. 대만 광복 후 대만인 지식인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소설로는 〈狡猿〉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동시대를 살았던 중국 대륙의 葉聖陶나 대만의 吳濁流는 모두 교육계인사로 생을 시작하여 마감하였다. 葉聖陶·吳濁流는 사실주의 창작방법으로 현실사회 속의 다양한 지식인 형상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외재적 세계로부터 내재적 세계의 심리 묘사를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모순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본능적 모순간의 심리갈등을 심도 있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대륙과 대만사이 동시기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인생관의 변화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Chen Liao. *Ye Shengtao Critical Biography*. Tianjin: Baihua Literature, 1981.
2. Jin Mei. *Ye Shengtao Creation of Literature*. Shanghai: Shanghai Literature, 1985.

3. Lan Bozhou. *Wu Zhouliu Life In Xihu*. Miaolixian: Xihu Xiang Office, 2004.
4. Lin Ruiming. *History And Review of Taiwanese Literature*, Taipei: Yunchen Culture, 1996.
5. Liu Zengren. *Ye Shengtao Research Materials*. Beijing: Beijing October Literature Publisher, 1988.
6. Mao Dun. *China New Literature·Novel Collection of The First*. Shanghai: Shanghai Liangyou Book Publisher, 1935.
7. Ren Tianyou. *Ye Shengtao Novel Disussions*. Nanjing: JiangSu Educational Publisher, 1989.
8. Shang Jinlin. *Ye Shengtao Dicuss*, Hefei: Anhui Educational Publisher, 1995.
9. Wan Song. *Ye Shengtao Creation*. Lanzhou: Ganuu College of Education, 1980.
10. Wan Song. *Ye Shengtao Literature Way*. Lanzhou: Gansu College of Education, 1980.
11. Wu Zhouliu. *Wu Zhouliu Collection*. Taipei: Yuanxing Publisher, 1977.
12. Wu Zhouliu. *Taiwan LianQiao*. Taipei: Qianwei Publisher, 1991.
13. Wu Zhouliu. *Wu Hua Guo*, Taipei: Qianwei Publisher, 1988.
14. Wu Zhouliu. *Asia Orphan*. Taipei: Caogen Publisher, 1995.
15. Wu Zhouliu. "Literature is Literature, is not Tool", *Taiwan Literature* No.11, (1966).
16. Wu Zhouliu. "An Outlook On Literature", *Taiwan Literature* No.46, (1975).
17. Wu Zhouliu(Peng Ruijin). *Wu Zhouliu Anthology*. Taipei: Qianwei Publisher, 1991.
18. Ye Shengtao. *Ye Shengtao Anthology 1-25*. Nanjing: JiangSu Educational

- Publisher, 1987~1994.
19. Ye Shengtao. *Ye Shengtao Representative work*. Zhengzhou: HuangHe Literature, 1987.
 20. Ye Shitao, "A Study Of Wu Zhouliu 'A Behind-The-Scenes Ruler'". *Taiwan Literature* No.9, (1965).
 21. Ye Shitao, "A Study Of Wu Zhouliu". *Taiwan Literature* No.12, (1966).
 22. Zhang Liangze. *Wu Zhouliu Anthology 1-6*. Taipei: Yuanxing Publisher, 1976.

< 참고문헌 >

1. 陳遼, 《葉聖陶評傳》, 天津, 百花文藝, 1981.
2. 金梅, 《葉聖陶的文學創作》, 上海, 上海文藝, 1985.
3. 藍博洲編, 《吳濁流的西湖歲月》, 苗栗縣, 西湖鄉公所, 2004.
4. 林瑞明, 《臺灣文學的吳歷史考察》, 臺北, 允晨文化, 1996.
5. 劉增人等, 《葉聖陶研究資料》,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8.
6. 茅盾, 《中國新文學大系·小說一集》, 上海,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5.
7. 任天石, 《葉聖陶小說論》,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9.
8. 商金林, 《葉聖陶傳論》, 合肥, 安徽教育, 1995.
9. 萬崑, 《葉聖陶創作論略》, 蘭州, 甘肅師範大學, 1980.
10. 萬崑, 《論葉聖陶的文學道路》, 蘭州, 甘肅師範大學學報, 1980.
11. 吳濁流, 《吳濁流選集》, 臺北, 遠行出版社, 1977.
12. 吳濁流, 《臺灣連翹》, 臺北, 前衛出版社, 1991.
13. 吳濁流, 《無花果》, 臺北, 前衛出版社, 1988.
14.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臺北, 草根出版社, 1995.
15. 吳濁流, 〈文學就是文學, 不是工具〉, 《臺灣文藝》 11期, 1966.

16. 吳濁流, 〈對文學的一二管見〉, 《臺灣文藝》 46期, 1975.
17. 吳濁流著, 彭瑞金編, 《吳濁流集》, 臺北, 前衛出版社, 1991.
18. 葉聖陶, 《葉聖陶文集1~25》,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7~1994.
19. 葉聖陶, 《葉聖陶代表作》, 鄭州, 黃河文藝, 1987.
20. 葉石濤, 〈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 《臺灣文藝》 第9期, 1965.
21. 葉石濤, 〈吳濁流論〉, 《臺灣文藝》 12期, 1966.
22. 張良澤編, 《吳濁流作品集》(1)~(6), 臺北, 遠行出版社, 1976.

< Abstract >

Chinese Ye Sheng Tao and Taiwanese Wu Zhou Liu lived at the same period of time. The two persons received classical education of Chinese literature at young age and modern education when they grew up. The two people frankly described social aspects of the time through created example of educational world's reality of China and Taiwan while working as professors. Especially, as educated persons they showed their worry about problems of China and Taiwan of the time through their intellectual image of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e work we can see psychological description of human's outer and inner world through intellectual image that appears in their works. The work shows not only the change of view of world and life of Chinese and Taiwanese educated people of the period but also frankly described one's anger, another one's wander and situation how other one is giving up.

Key Words : 葉聖陶(Ye Sheng Tao), 吳濁流(Wu Zhou Liu), 단편소설 (short stories), 사실주의(realism), 지식인 형상(intellectual image)